

미국인 제이 스텝도우 씨, 1970년대 원광대 사료사진 기증

1970년~1971년까지 캠퍼스 전경 및 행사 등 대학 관련 슬라이드 필름 100여 점

1970년부터 1971년까지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원광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했던 미국인 제이 스텝도우(Jay Steptoe, 73) 씨가 2년 동안 찍은 캠퍼스 전경 및 행사 등 대학 관련 슬라이드 필름 100여 점을 원광대에 기증했다.

지난 17일 박맹수 총장을 방문해 직접 필름을 전달한 제이 스텝도우 씨는 "당시 원광대에서 활동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후에도 나날이 발전하는 원광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며, "조금이라도 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고, 평소 간직해온 소중한 사진자료가 다른 곳보다는 원광대에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방문길에 대학을 찾았다"고 말했다.



미국인 제이 스텝도우(Jay Steptoe, 73)씨가 1970년부터 1971년까지 찍은 필름 100여 점을 원광대에 기증했다.

이에 박맹수 총장은 "보여주신 정성과 깊은 뜻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사진자료도 기록물관리과에 맡겨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초청해 특강 등 학생 및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텝도우 씨가 기증한 사진 자료는 보존 상태가 좋은 컬러필름으로 당시 대학 모습을 일차별로 정리에 변화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잘 정리가 있으며, 원광대 기록물관리과는 향후 디지털 작업을 거쳐 대학 사료로 활용하고,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에 걸쳐 대학과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한 제이 스텝도우 씨는 미국 워싱턴 D.C. 출신으로 20대 초반 한국에 들어와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영어 교육을 비롯해 원불교 교정의 번역작업에도 참여했으며, 귀국 후에는 로스쿨을 거쳐 2017년까지 NASA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던 이어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익산=정왕원 기자

남원우체국, 시각장애인 가구 생계비 지원

남원우체국(국장 유기권)은 지난 17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5명을 돌보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구 1세대(총 7인)와 시각장애인 1세대에 총 2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전달했다.



지원금을 전달받은 소모씨는 "혼자 소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우체국의 따뜻한 마음에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기권 국장은 "남원우체국은 앞으로도 우체국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우체국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통해 10세대에 총 1,280만원을 지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경찰, 어르신 이론운전자 안전모 배부 및 착용 홍보

임실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이론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어르신 이론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모를 배부하고 있다.

이번 예방활동은 가을철 농작물 수확과 작업 등으로 시골 도로에 어르신이 운전하는 농기계와 이륜차가 많이 통행하고 있어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고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홍보 및 안전모를 현장에서 전달하고, 안전모를 필히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민 서장은 "가을 수확철을 맞이하여 시골은 바쁜 일상으로 도로에 차량과 이륜차, 농기계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안전벨트와 안전모같은 안전장비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 마을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 나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지난 18일 이마트 남원점, 남원YWCA통합상담소와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업무 중 발견한 이들에 대해 필요한 물품 및 상담, 프로그램참여 등 지원활동을 요청하면 이들 기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함현배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정성치안을 다해 안전한 남원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행복임실누리단, 삼계면 학정마을서 봉사활동

임실군 삼계면은 최근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이 학정마을을 찾아 주민과 관계자 등 80여명의 참여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행복임실누리단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여가·복지·건강·위생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찾아가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삼계면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준환, 김효진)의 봉사활동 진행속에 군 보건의료원, 임실군사회복지협의회, 임실군자원봉사센터, 금성안경원 등 기관단체가 참여해 주민들에게 한방진료, 치매예방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자체 합동소방훈련 실시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최근 임실119안전센터와 공동으로 제1총령당에서 2019년 공공기관 자체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합동소방훈련은 총령당 지하 추모실에서 화재가 발생된 상황을 가정해 상황전파, 피난대피, 소화활동, 응급구조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작동법 교육 등 필수적인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을 주관한 윤명석 원장은 "국립임실호국원은 많은 유족이 이용하는 다중시설로서 화재발생 시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하며,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시설물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여 유가족을 위한 따뜻한 보호 실천에 철자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국피플 인터내셔널 전북지부, 정읍시 저소득층 여성 대상 위생용품 지원

(사)국피플 인터내셔널 전북지부(지부장 유영준)는 지난 18일 지역 내 기초수급자와 한 부모, 다문화 이주여성 등 저소득층 여성에게 위생용품을 후원했다.

국피플은 여성 보건 위생용품 20박스과 음료수 330박스 등 2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정읍시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 내 저소득층 여성들이 위생용품 구입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군수배 태권도 대회 성료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완주군수배 태권도 대회가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태권도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완주군태권도협회(회장 전광수)가 주최해 행사관계자, 임원, 선수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치부와 초·중학생 대상으로 관내 태권도 도장별 겨루기 및 품새 대항과 뛰어난이치기인 격파대회 등이 열렸으며,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이 수여됐다.

전광수 완주군태권도협회장은 환영사에서 "태권도는 인격을 향상시켜 건강한 자태와 품성을 지니게 하는 스포츠"라며 "이번 대회에 많은 꿈나무들이 참가해 태권도의 앞날을 밝게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정읍경찰, 3분기 베스트 정보관·외사경찰 선발 '점검서'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 정보보안과에서는 전북지방경찰청이 선정하는 3분기 베스트 직원 선발에서 베스트 정보관과 베스트 외사경찰이 한꺼번에 선발되는 결경사를 맞았다.

베스트 정보관으로 선발된 정보계 고문수 경위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고민하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보관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정부정책시행과 발굴 등 정보 업무의 우수활동을 인정받아 정책정보 부문 우수자로 선정됐으며, 베스트 외사경찰로 선발된 김성태 순경은 정읍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112신고요령을 5개 국어로 번역한 안내문을 제작·홍보하고, 다문화 운전면허교실 및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운영 등 맞춤형 다문화 치안활동을 전개한 공적이 인정돼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사 내방

▲홍영진 전북도 소방본부장 ▲박 현 전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팀장

결혼

▲우경춘(우태만 전주매일 진안주재 국장·조육분씨 장남)군·송아름(송재진·이후남씨 장녀)양= 일시: 26일(토) 낮 12시, 장소: 진안 산약초 타운(진안군 진안읍 외사양길 16-19), 연락처: 010-4005-3064(우태만)



축! 전주매일 창간

호남의 금강 '대둔산'